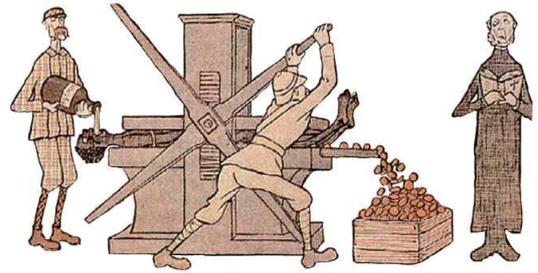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의 등장]

01. 정의

- 1880년 전후 등장한 **침략적 민족주의**
- 열강의 대외 침략 정책



〈토머스 하이네,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

02.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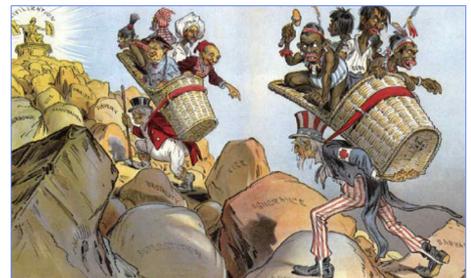
- **독점적 자본주의 출현**
: 값싼 원료 공급지와 제품을 판매하고 국내 잉여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
- 국민 국가 간 경쟁과 갈등

03. 확산

- 민족주의와 결합
: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이 민족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 준다고 생각하여 적극 지지
- **사회 진화론 유행**
: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 ~ 1903)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 저급의 상태에서 고급, 우등의 사회로 발전한다.

- 다윈의 자연 선택(『종의 기원』, 1859)을 사회에 적용
-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 제공
-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
- **서양의 문화·인종 우월주의**
: **백인종이 황인종과 흑인종보다 우월, 비유럽 지역 = 야만 지역**
: 크리스트교와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백인의 신성한 의무이자 봉사로 미화
: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화



〈빅터 길럼, 「백인의 짐」〉

04. 열강의 경쟁 심화

-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정책 주도

영국은 넘쳐 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 -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총독, **세실 로즈**(1853 ~ 1902)

- 통일 국가를 이룬 이탈리아(1861)와 독일(1871)의 제국주의 대열에 합세
- 남북 전쟁(1861 ~ 1865) 이후 미국의 동참
- 19세기 후반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과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 추진
- 열강 간의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01. 배경

- 탐험가 리빙스턴(1813 ~ 1873)과 스탠리(1841 ~ 1904)에 의해 아프리카의 내륙 사정이 유럽에 소개
- 나는 방대하고 비옥한 아프리카 대륙이 신비의 베일을 벗고 유럽인의 경제생활에 유용한 상업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 나의 기록이 미지의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리빙스턴의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1856)

02. 분할 정책과 충돌

1) 영국의 종단 정책과 3C 정책

• 종단 정책

: 수에즈 운하 관리권 장악(1875), 이집트 보호국화(1882)

: 보어 전쟁(1899 ~ 1902), 케이프 식민지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조직(1910)

• 3C 정책[케이프타운(Cape Town) ~ 카이로(Cairo) ~ 캘커타(Calcutta)]

2) 프랑스의 횡단 정책 추진

• 알제리 장악(1834), 튀니지 보호령화(1881)

•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벨기에)

• 프랑스령 서아프리카(1895 ~ 1958)

3) 벨기에

• 레오폴드 2세(재위 1865 ~ 1909)

: 영국 · 포르투갈 연합 격퇴(1884 ~ 1885)

: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대한 영유권 선언

4) 독일

• 남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토고 · 카메룬 차지

• 모로코 사건(⇔ 1905 · 1911)

: 탕헤르 지역에서 프랑스와 충돌

: 영국 · 미국의 중재 → 콩고 북부 할양(1911)

5) 포르투갈

• 앙골라 ~ 모잠비크 연결 → 독립(1975)

: 『장미 빛 지도』 구상(1886)

6) 파쇼다 사건(수단, 1898. 7월)

• 영국(종단) ⇔ 프랑스(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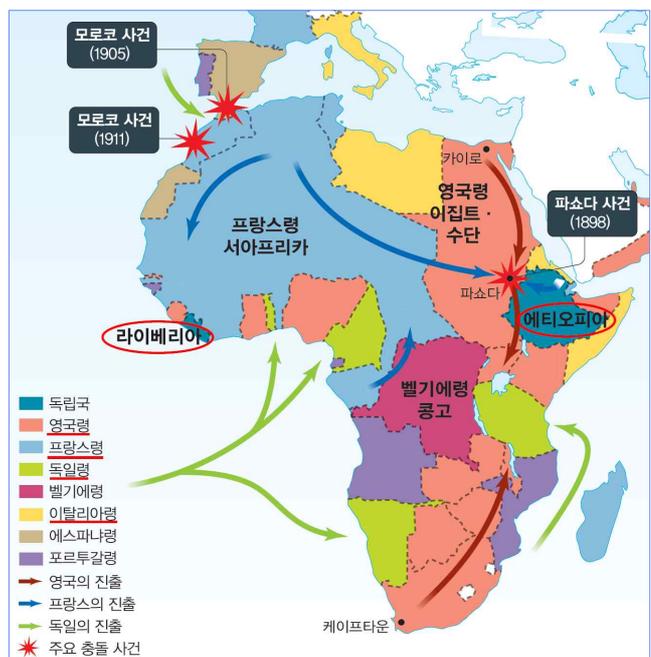
• 독일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양보

03. 독립국 유지

- 라이베리아(자유의 나라,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1847), 에티오피아



〈키니네(말라리아 예방약)〉



〈아프리카 분할 · 점령과 열강의 충돌〉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분할]

01. 포르투갈

- 신항로 개척 이후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 진출
- 블라카 왕국 점령(1511)
- 향신료 무역 독점

02. 영국

- 동인도 회사 설립(1600)
- 미얀마를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1886)
- 블라카(1824), 말레이 연방 결성(1895)

03. 프랑스

- 베트남, 캄보디아 진출
- 청프 전쟁(1884 ~ 1885)에서 승리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04.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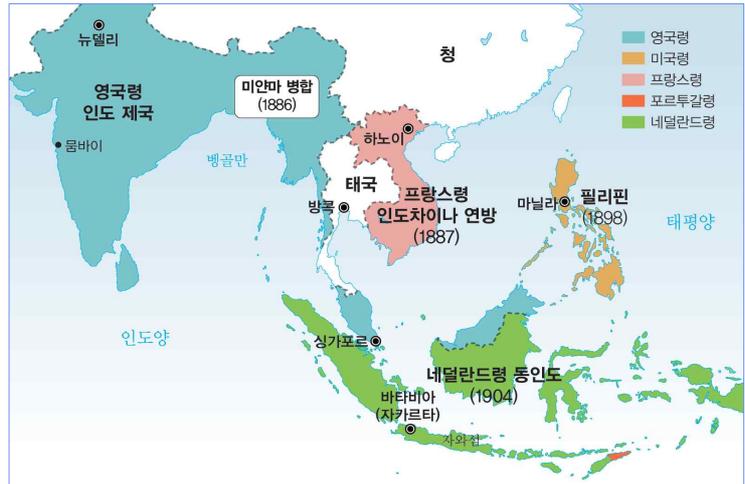
- 말루쿠 제도 진출 → 포르투갈로부터 지배권 약탈(1599)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설립(1602)
: 바타비아(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 독점
- 블라카 확보(from 포르투갈, 1641)
- 자와 전쟁(1825 ~ 1830) → 자와 섬 장악
-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904)
: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확보

05. 에스파냐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1837)
-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패배
: 파리 조약 → 필리핀 식민지 상실

06. 러시아

- 시베리아 개척, 이란 침략, 아프가니스탄 진출 시도
-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팽창 견제(1880)



<열강의 인도,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착취>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제국주의 열강의 태평양 분할]



01. 미국

-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여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
- 에스파냐와의 전쟁(1898)에서 승리
: 쿠바 보호국화, 필리핀과 괌의 식민지화

02. 독일

- 태평양 서부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등을 에스파냐로부터 매입
-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 점령

03.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죄수 유배지로 이용(1788)
-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음(1840)



읽어 보기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



▣ 러디어드 키플링, 『백인의 짐』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 야만적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 기아로 허기진 입들을 먹이기 위해 /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 그리고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 너는 원하는 다른 미개인들을 위해 / 다른 원주민들과 이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라 / 그들의 광기를 끝장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미래엔·비상·천재 교과서』)]

아프리카 마을의 여원 소년 40명은 저마다 고무 바구니를 들고서 한 줄로 늘어섰다. …… 네 바구니가 할당량보다 모자랐다. 냉혹한 명령은 짧고 날카로웠다. 네 명의 건강한 집행관이 양을 채우지 못한 첫 번째 어린이를 붙잡아 손발을 묶고는 기다란 채찍으로 때렸다.

- 아담 호크실드, 『레오폴드왕의 유령』(1998)



01. 배경

- 베를린 회의(1884 ~ 1885)
 - : 아프리카를 주인 없는 땅으로 선언
 - : 일정 지역을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국가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분할 원칙 합의
 - : 아프리카 분할 경쟁의 시작

02. 북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1951) • 알 무크타르(1862 ~ 1931)의 강력한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가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함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 ⇨ 30여 년간 민족 저항 ⇨ 프랑스의 무력 진압 • 프랑스의 식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0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함마드 아흐마드(1845 ~ 1885), 마흐디 운동(1881 ~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에 맞서 마흐디(구원자, = 마디) 자처 ✓ 외세를 배격하고 순수한 이슬람 신앙을 회복하자고 주장 ✓ 군대 구성, 토지 개혁 추진 → 영국군에 패배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와 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1896)에서 이탈리아의 침입 격퇴 ✓ 아디스아바바 조약(1896)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가 주변 부족을 통합하여 왕국 건설 • 줄루 전쟁(= 이산들와나 전투, 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영국의 침략 격퇴 ✓ 영국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식민지 전략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헤레로 족의 봉기(1904) → 독일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식민 지배와 수탈 • 마지마지 운동(1905 ~ 1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킨 제케틸레 주도로 주술사들의 저항 운동 ✓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 독일군의 헤레로족의 무장 봉기 진압(1904)

헤레로족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만일 떠나지 않으면 대포로 쫓아 버릴 것이다. 무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소 떼를 가졌든 안 가졌든 독일령 내에 있는 헤레로족은 누구든지 총격을 받을 것이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용서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자기 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도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헤레로족에 대한 나의 최후통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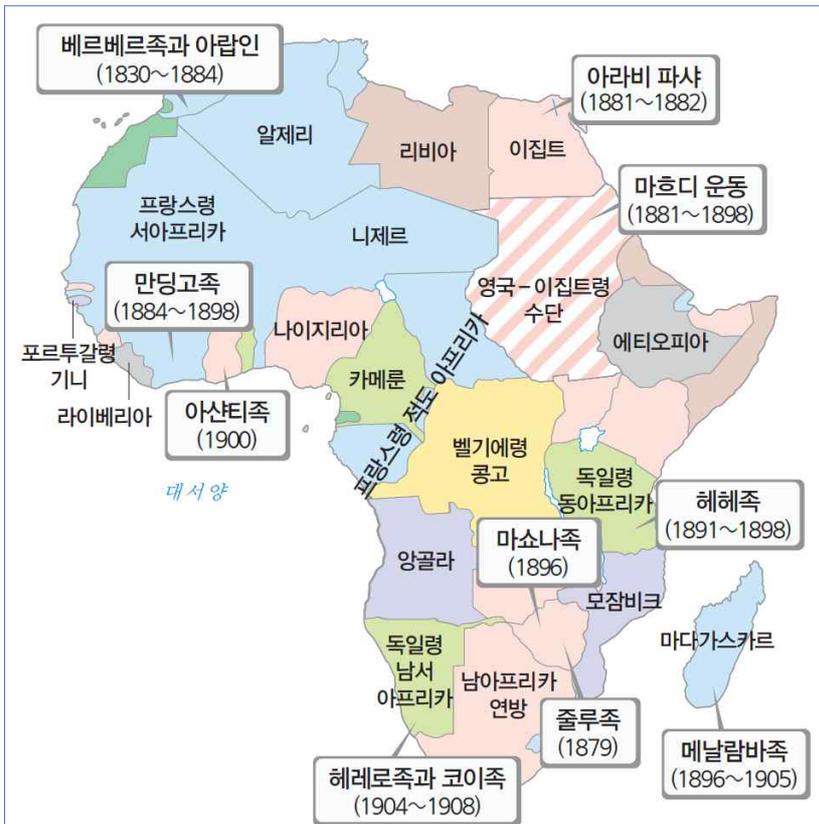
- 로타르 폰 트로타(Lothar von Trotha, 1848 ~ 1920) 장군의 명령

오늘날 아프리카의 서남부 나미비아 지역에는 헤레로족이 살고 있었다. 19세기 독일이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원주민의 가축과 땅을 마음대로 빼앗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1904년 무장 봉기를 일으켜 농장을 습격하고 많은 독일인을 죽였다. 이에 독일의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는 트로타를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군대를 파견하여 헤레로 족을 사막으로 몰아넣어 학살하였다. 이 학살로 헤레로족 인구의 80%가 사망하였다.

▣ 남아프리카 연방의 민족 운동

남아프리카에서는 18세기 말 ‘검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진 샤카 줄루의 영도 아래 줄루 왕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형제들의 세력 다툼으로 샤카 줄루가 암살당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후 영국의 침략을 받은 줄루족은 1879년 이산들와나 평원에서 영국군을 습격하였는데, 1,700명 이상의 영국군이 전사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영토 경계, 1914)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

01. 시암(타이)

- 짜끄리 왕조(차오프라야 짜끄리, = 방콕 왕조, 1782 ~)
- 라마 5세(6, 재위 1868 ~ 1910)의 근대적 개혁
: 철도 부설, 증기선 도입, 도로와 운하 건설, 노예 제도 및 신분제 폐지, 교육 기관의 창설 등
-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역할 자처 → 독립 유지

02. 베트남

- 근왕 운동(1885)
: 유학자들의 주도, 프랑스군에 진압
- 판보이쩌우(1867 ~ 1940)
: 베트남 유신회 조직(1904), 동유 운동 전개(1905)
: 『월남망국사』(~ 량치차오와 대담, 1905)
: 베트남 광복회 결성(광저우, 1912)
- 판쩌우찐(1872 ~ 1926)
: 퉁킹 의숙 설립(하노이, 사립학교, 1907), 문맹 퇴치와 근대 사상 보급을 위한 노력



<판보이쩌우>

03. 필리핀



<호세 리살>

- 호세 리살(1861 ~ 1896)
: 『나에게 손대지 마라』 저술(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 고발, 1886)
: 에스파냐인과 필리핀인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필리핀 연맹 조직(1892)
: 『마지막 이별』(처형되기 전날 밤 남긴 시, 1896)
- 아기날도(1869 ~ 1964)
: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에서 미국 지원
: 필리핀 공화국 선포(1899)

04. 인도네시아

- 카르티니(1879 ~ 1904)
: 여학교 설립, 근대 교육과 민족 교육 실시
- 부디 우토모 조직(1908)
: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 이슬람 동맹 결성(1912)
: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이슬람교도 상인 중심
: 외국 상인의 세력 확대와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에 저항

개념 Check

- ①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정책을 ()라고 한다.
- ② 1898년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추진하던 프랑스가 수단의 ()에서 충돌하였다.
- ③ 프랑스와 독일은 아프리카의 ()를 둘러싸고 1905년,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하였다.
- ④ 스펜서가 발표한 ()은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칙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⑤ 제국주의 후발 국가인 ()은 남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카메룬·토고 등을 차지하였다.
- ⑥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를 보호국화하고 ()을 식민지로 삼았다.

유형 CHECK!!

01

(기),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세계사 신문

특집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북서 아프리카의 탕헤르에서 충돌 위기에 직면하였던 (가) 와/과 (나) 의 갈등은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의 중재로 일단 봉합되었다. 하지만 또 한차례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표단은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가) 은/는 토고와 카메룬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주요 권익을 확고히 하였으며, (나) 은/는 콩고강 유역의 일부 지역 이외에도 서아프리카에 있는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체결하였다.
- ② 알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 ③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파쇼다 사건을 일으켰다.
- ④ 알자스·로렌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 ⑤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02

(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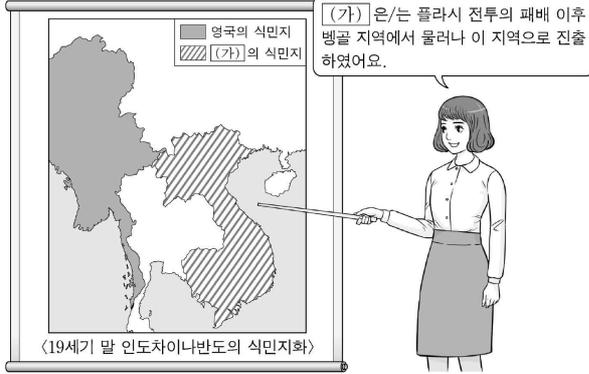
스코틀랜드에 계신 아버지께
 홍콩에서 보내 온 아버지의 서신을 한 시간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중략)… 홍콩과 인접한 이곳에서는 최근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 에서 파견된 총독이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입니다. 그는 (가) 의 식민지인 앙골라의 부총독직을 거쳐, 중국으로부터 확보한 이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우리 상인들의 차 무역을 지원 하였지요. 그런데 그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을 적대시하는 강압적 통치와 과도한 경제적 규제 조치를 고수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자의 죽음 앞에서 어찌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윌리엄 멀로즈

- ① 네덜란드에 무역 거점을 빼앗겼다.
- ②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③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 ⑤ 레오폴드(레오폴트) 2세 통치 하에 콩고 일대를 장악하였다.

03

(가)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 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 ② 제2차 아편 전쟁에 가담하였다.
- ③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하였다.
- ④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⑤ 바스쿠 다 가마의 항해를 지원하였다.

05

밀줄 친 '우리나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친애하는 나의 벗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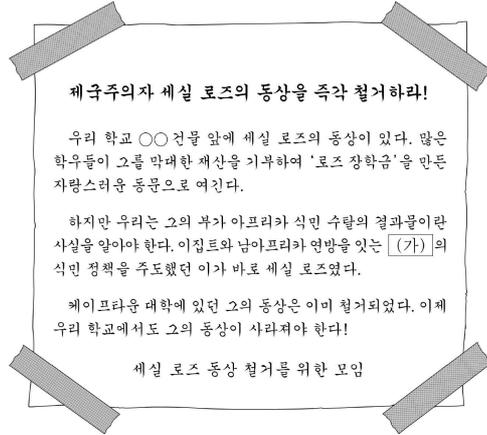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해군 함대가 중국 해안에서 남쪽 방면으로 출정하였네. 아군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적함들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지. 당시 마닐라 연안에 구축된 에스파냐의 포대는 제대로 대응 사격 한번 하지 못한 채 점령당하였네. 이처럼 필리핀에서 승리한 우리 해군의 탁월한 역량이 쿠바에서도 다시 발휘되지 않겠는가?

- ① 영국과 플라시 전투를 벌였다.
- ②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 ③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④ 앙골라, 모잠비크 등을 지배하였다.
- ⑤ 일본에게 진주만 기지를 기습당하였다.

04

(가)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 ① 콩고를 식민 지배하였다.
- ②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다.
- ③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④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 ⑤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

06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가) 흥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가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쎬스의 주도로 착공된 지 10년여 만에 개통되었다. 이로써 유럽과 인도를 오갈 때 남아프리카 아굴라스 곶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나) 프랑스 원정대는 가봉에서 동쪽으로 진격했고 영국 군대는 이집트에서 나일 강을 따라 남하하였다. 프랑스군이 먼저 파쇼다에 도착해 요새를 점령했지만 곧 영국군의 도전을 받아 몇 달간 긴장이 지속되었다.

- 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수립되었다.
- ② 한반도와 만주의 이권을 두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③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이란 입헌 혁명이 실패하였다.
- ④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으로 제1차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영국과 프랑스가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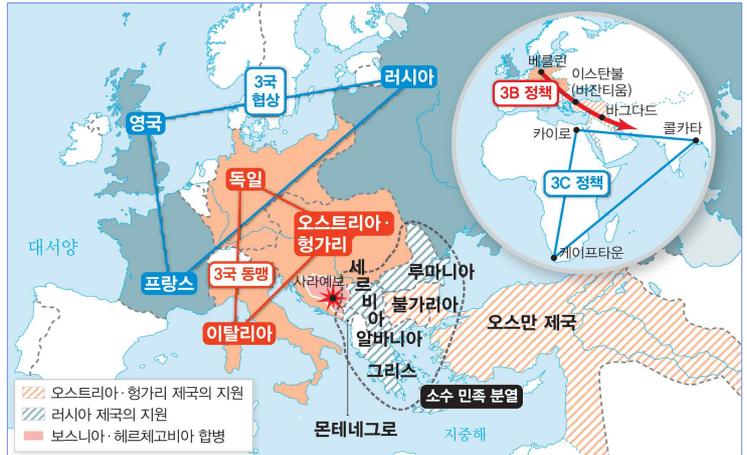
01. 독일의 대외 정책 변화

1) 비스마르크(1815 ~ 1898)

-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
- 삼제 동맹(1873)
: ~ 오스트리아, 러시아
- 삼국 동맹 체결(1882)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2) 빌헬름 2세(②, 재위 1888 ~ 1918)

- 3B 정책(대외 팽창 정책)
: 베를린 ~ 비잔티움 ~ 바그다드
- 모로코 사건
: ⇔ 프랑스, 1905·1911
- 범게르만주의 표방
: 발칸 반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후원
: 범슬라브주의(러시아의 세르비아 후원)와 충돌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의 유럽〉

02.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 3C 정책
: 카이로 ~ 케이프타운 ~ 콜카타
- 삼국 협상 성립(1907)
: 러·프 동맹(1894) ⇔ 영·프 협상(1904) ⇔ 영·러 협상(1907)
: 독일의 팽창 견제



〈영국의 3C 정책〉

03. 발칸 전쟁(1912 ~ 1913)

- 발칸 반도
: 유럽의 화약고(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 ~)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1908)
: 슬라브계 민족의 독립 저지 시도
- 제1차 발칸 전쟁(1912)
: 제1차 발칸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몬테네그로 등) ⇔ 오스만 제국
: 동맹국이 승리하여 발칸 반도의 대부분 차지
- 제2차 발칸 전쟁(1913)
: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지역 병합 시도 ⇔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좌절 ⇔ 제2차 발칸 동맹(세르비아·그리스 등) 결성 ⇔ 제2차 발칸 동맹국과 불가리아의 충돌
: 불가리아의 패배와 영토 상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발발과 전개]

01. 사라예보 사건(1914. 6월 28일)

-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격화
-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1894 ~ 1918)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 : 동맹국(**이탈리아의 이탈**)과 협상국의 참전
- :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의 동맹국 가담



<사라예보 사건>

02. 독일군의 서부 전선

- 벨기에 침공(1914) ⇨ 프랑스로 진격 ⇨ 영국의 프랑스 지원
- **마른 전투(1914), 솜 전투(1916)**
- : 독일군의 패배
- :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 참호전(신무기의 공격을 피해 참호를 파고 전투) 전개

03. 독일군의 동부 전선

- 러시아 영토 진격
-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발생(1917. 3월)
- **단독 강화(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 3월 3일)**
- :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

04. 전세의 변화

- 영국 해군의 북해 봉쇄 → 독일의 고립 시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전개
- : 영국 국적의 여객선 루시타니아 호 침몰(뉴욕 → 리버풀, 1915. 5월 7일)
- 치머만 전보 사건(1917. 1월)
- :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 : 독일이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 추진
- 미국 의회의 대독 선전 포고 결정(**1917. 4월 6일**)
- :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

지난 2월 1일을 기해 독일 정부는 법이나 인간애의 억제력을 강그리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해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서부 해안 또는 지중해에 있는 독일의 적들이 관할하는 항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통상에 대한 독일 잠수함의 전투 행위는 인류에 대한 전투 행위입니다. 미국 선박이 침몰되고,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립국의 선박과 국민도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 미 대통령 윌슨의 연설(1917. 4. 2)



<독일 U보트>

- 독일의 서부 전선 총공격 단행과 실패(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 전선 이상 없다』, 1929)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1914 ~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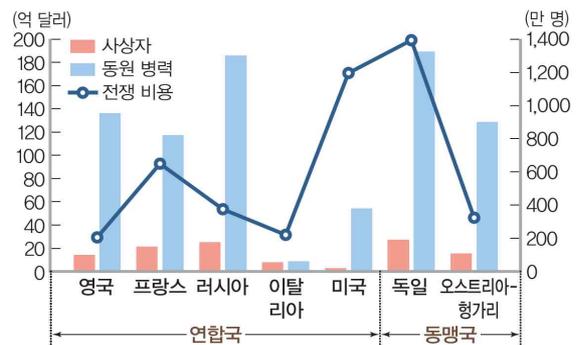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중점]

01. 동맹국의 탈퇴와 항복

- 독일의 서부 전선 총공세 실패
-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의 항복

02. 독일 제국의 정치 변화

-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과 11월 혁명 발생(1918)
 - :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의 폐위 → 네덜란드 망명
 - :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선포
- 협상국 ~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
 - : 전쟁 종결(1918. 11월 18일)
- 제헌 의회 소집(바이마르, 1919. 2월)
 - : 초대 대통령 선출, 최초 정부 구성
 - : 바이마르 헌법 채택(공화정체, 1919. 7월)
 - :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 1933)



<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더 타임스 세계사』(2016)>

03. 전쟁의 특징

-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총력전 전개
- 기관총,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 신무기 등장

04. 문예 사조의 변화

-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등장
- : 보수적인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가치 부정과 전쟁 반대 운동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의 세계]

01. 파리 강화 회의(1919. 1월 ~ 1920. 1월)

-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승국 대표들이 참가해 전후 처리와 평화 수립 논의
- 윌슨이 제창한 평화 원칙 14개조에 따라 진행

02. 베르사유 조약 체결(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1919. 6월 28일)

-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응징
: 식민지 상실, 알자스·로렌 지방(프랑스 양도), 군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 지불(독일의 100년 예산)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 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 강 유역에 있는 탄광 지대의 독점 채굴권을 포함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에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베르사유 체제 하의 유럽)

03.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1920. 1월)

-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창
-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 →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제네바)
- 미국 불참(의회 반대)
- 독일과 소련 제외 → 독일(1926), 소련(1934) 가입
-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04.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 워싱턴 회의(1921 ~ 1922)
: 해군력 제한 등 군비 감축 논의
- 로카르노 협정(1925)
: 독일의 알자스·로렌 지방 포기, 라인란트 영구 비무장화,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 결정
-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 1928)
: 미국(켈로그), 프랑스(브리앙), 영국 등 15개국의 합의

제1조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난하며,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2조 조약 체결국은 상호 간의 분쟁을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의 세계]

05.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Dawes Plan, 1924)
: 독일의 배상금 지급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강제 점령(1923)
: 미국의 자본 8억 달러 투입
- 영안(Young Plan, 1929)
: 배상 금액을 1/4 정도인 358억 마르크로 탕감하고 지불 기한을 59년으로 연장
- 로잔 회의(Conference of Lausanne, 1932)
: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면제

06. 전후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 1) 영국의 정치 변화
 - 노동당 내각 수립(1924), 여성에 대한 참정권 인정(1918 → 1928)
- 2)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1919 ~ 1933)
 - **바이마르 헌법**(1919. 7월)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제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협정과 조치는 위법이다.
제165조 노동자 및 고용인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과 생산력의 모든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기업가와 대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 3)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붕괴
 -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1919 ~ 1934), 헝가리 제1공화국(1918 ~ 1919)
- 4) 오스만 제국의 붕괴
 - **무스타파 케말**(1881 ~ 1938)
: 청년 장교들과 함께 **터키 공화국 선포(1923)**
: 이슬람교의 영향력 축소 → 술탄 제도 폐지, 세속화와 서구화 추진
: 일부다처제 폐지, 남녀평등권 도입, 로마자 표기법 도입 등 근대화 노력



〈무스타파 케말의 문자 제정〉

07.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변화

- **팔레스타인 분쟁의 발단**
: **후세인·맥마흔 비밀 서한**(1915),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 **벨푸어 선언**(1917)
- 제1회 범아프리카 회의 개최(파리, 1919)
: 하나의 아프리카 건설 표방, 노예 제도 폐지와 아프리카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정비 등 결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01. 혁명 이전의 정세

- 공업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발달과 노동자 계급 성장
- 피의 일요일 사건(1905. 1월 22일)

: 러일 전쟁(1904 ~ 1905)에서 열세, 차르(tsar, 이반 4세, 1547 ~)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 8시간 노동, 의회 소집, 시민적 자유 등을 황제에게 진정하기 위한 평화로운 군중 시위 발발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러 당신께 갑니다. ……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차르 수비대의 무력 진압과 사상자 발생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10월 선언
- : 시민적 자유와 국회 소집 약속 → 두마 의회 개설(1906)

02. 혁명의 전개(1917)

1) 3월(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거듭된 패전 ⇨ 전쟁 장기화 ⇨ 식량 부족,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
-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차르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발생

우리는 부서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가고를 해결하라!”, “굶주림을 없애라!”, “노동자에게 빵을!” 나와 몇 명 동료들은 즉시 참가로 달려갔다. …… 투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여성 노동자들의 무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작업을 멈춰요!”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눈물치기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 페트로그라드 노벨 기계 제작소 노동자의 회고

-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Soviet, 평의회)를 조직하여 혁명 추진
- 니콜라이 2세(1868 ~ 1918) 퇴위와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
- 케렌스키(1881 ~ 1970)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

2) 11월(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전쟁 지속, 토지 제도 개혁 연기 등 미온적 개혁
- 4월 테제(April Theses, 레닌, 스위스)
: 전쟁 중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지주의 토지 몰수와 국유화 등 주장
-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Bolsheviki, 다수파)의 무장 봉기

임시 정부는 타도되었다 임시 정부의 각료는 거의 체포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겨 그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병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할 것을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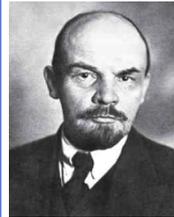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선언문(1917. 11. 8.)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혁명 이후의 러시아]

01. 레닌(1870 ~ 1924)의 소비에트 정부

- 의회 해산 등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1918. 3월)
: 폴란드·발트해 연안·벨로루시의 할양, 우크라이나 독립 승인, 전쟁 배상금 지급
- 사회주의 경제 개혁 추진
-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 코민테른(Comintern) 창설(제3차 인터내셔널, 1919 ~ 1943)



(레닌)

- 1900년 독일 망명 『이스크라(불꽃)』 창간
- 1905년 러시아 귀국
- 1907년 스위스 망명
- 1917년 러시아 귀국 볼셰비키 혁명 『제국주의론』 저술

02. 레닌의 신경제 정책(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 1921 ~ 1928)

- 급속한 공산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해결과 국민 불만 해소
- 시장 판매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일부 도입
- 개인 농장 부활, 소기업인과 관리자들(Nepmen)의 성장

01. …… 농촌 경제를 강화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 국가가 식량, 원료 및 사료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식량 할당 징발제 대신에 현물세를 실시한다.
02. 이 현물세는 식량 할당 징발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과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03. 현물세를 납부하고 농민들의 손에 남는 모든 식량과 원료 및 사료의 처분은 그들의 재량에 맡기며, ……
- 신경제 정책에 관한 제10회 당 대회 결의(1921. 3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1922. 12월 ~ 1991. 8월)]

01. 성립

- 소비에트 러시아 중심
-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흡수

02. 스탈린(1878 ~ 1953)의 독재 체제

- 소련 공산당 서기장(1922 ~ 1953)
- 정권에 대한 비판 금지, 반대자들을 감금하는 수용소[굴라크(Gulag), 1930 ~ 1955] 건설
- 토지와 농민을 묶어 집단 농장으로 운영
: 1930년대 농업 위기 초래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1928 ~ 1932)
: 신경제 정책 폐지
: 중공업 육성, 공장과 댐을 건설하고 새로운 광산 개발



▣ 후세인 · 맥마흔 비밀 서한(1915)

아덴과 시리아 서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아랍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 …… 영국은 다양한 지역에 가장 적절할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도록 아랍인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 뵈프우어 선언(1917)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의 본거지를 건설하는 일에 호의를 보이며, 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유대인 단체의 시민적·종교적 여러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이 누리고 있는 여러 권리 및 정치적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1918)

- 01.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진영과 러시아측 진영은 이들 사이에 교전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들은 이후 평화와 상호간의 우호 관계 속에서 살기로 결정한다.
- 03.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이전에 러시아에 속했던 선(線) 서쪽의 영토는 더 이상 러시아 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국 간에 합의된 선은 이 평화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출된 지도에 의해 정해진다.

▣ 일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 01. 공개적으로 체결된 공공연한 강화 조약 이외에는 이후 어떤 비밀스러운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다.
- 05.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주민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모든 식민지의 요구들에 대해 자유롭고 편견 없이 또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
- 14.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특정 협약 하에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개념 Check

- ①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의 3국 협상국에는 영국, 프랑스, ()가 있었다.
- ②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③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이 전개한 ()을 계기로 협상국 편에 참전하였다.
- ④ 니콜라이 2세는 ()을 계기로 두마(의회)의 입법권 조장 등 개혁을 약속하였다.
- ⑤ 1917년 11월(러시아력 10월)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⑥ 러시아 혁명 성공 이후 레닌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을 시행하였다.
- ⑦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전승국과 ()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 ⑧ 1920년에 창립된 ()에는 미국이 불참하였고, 독일과 소련은 제외되었다.

01

밑줄 친 ‘우리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친애하는 의무 장관에게
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인들이 과거 술탄의 군대에 당한 것과 같은 압제와 핍박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내부 분쟁과 갈등은 일거에 소멸될 것입니다. ... (중략) ... 아울러 나는 다양한 민족에게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최근에 합병된 보스니아 등지에 대해서도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이는 차르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 헝가리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슬라브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프란츠 대공

- ①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 ②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 ③ 빌헬름 1세의 황제 즉위를 통해 수립되었다.
- ④ 마치니의 주도하에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사보이(사부아)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였다.

03

(가)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제1조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측은 [가]와 (과)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3조
[가]은(는) 과거 영토 중 일부에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새로이 결정된 국경선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추후 독일 제국 주도의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 ①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다.
- ③ 추축국 동맹에 참여하였다.
- ④ 신경제 정책[NEP]을 실시하였다.
-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탈퇴하였다.

02

밑줄 친 ‘조약’이 체결된 결과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프랑스 군인들이 깃발을 흔들며 다른 차량들을 막고 있다. 페탱 장군 등이 도뇌르 광장에 군인들과 함께 있다. 대표단들은 회의장인 거울의 방으로 들어간다. 우드로 윌슨과 로이드 조지는 뒤늦게 도착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전승국 장교 넷이 들어오고, 처량한 모습으로 두 명의 독일 대표가 뒤따른다. 클레망소가 “신사 여러분, 조인식을 시작합니다.”라고 말한다.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독일 대표들이 조약에 서명을 한다.
- 해럴드 니콜슨의 목격담

- 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 ②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 ③ 독일 쾰 군항에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④ 프랑스와 독일의 충돌로 모로코 사건이 발발하였다.
- 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독일 등과 동맹을 맺었다.

04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으)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나]은(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업자와 면 제조업자 등 기업가들은 정부와는 달리 경제적 이유로 운하 건설에 찬성하였다.

- ①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 ②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
- ③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
- ④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교전을 벌였다.
- ⑤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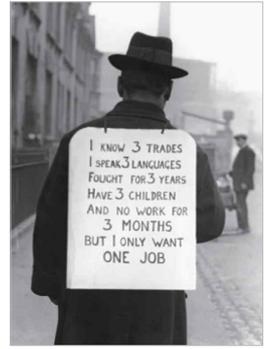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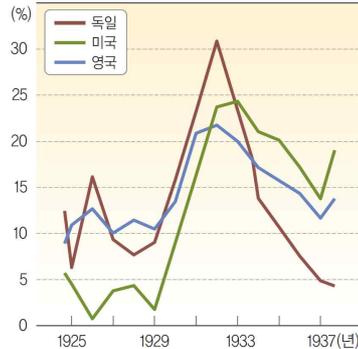
[대공황의 발생]

01. 배경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축소
-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1929. 10월 24일) → 전 세계로 확산

02. 영향

- 은행, 기업과 공장 도산 → 실업자 급증
- 농산물 가격 폭락
-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 : 전체주의의 확산



〈대공황 시기 주요 국가의 실업률〉

〈실업자의 구직 호소문〉

[자유 진영의 대응]

01.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1933 ~ 1945)의 뉴딜 정책

-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국토 개발과 실업자 구제)
-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농업 조정법(AAA)	• 연방 정부의 농업 생산 조절, 1933
전국 산업 부흥법(NIRA)	• 국가가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1933
전국 노동 관계법(Wagner Act)	• 최저 임금제, 최고 노동 시간 규정, 단체 교섭권 보장, 1935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노인, 유족, 실업자, 산업 재해,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체제 시행,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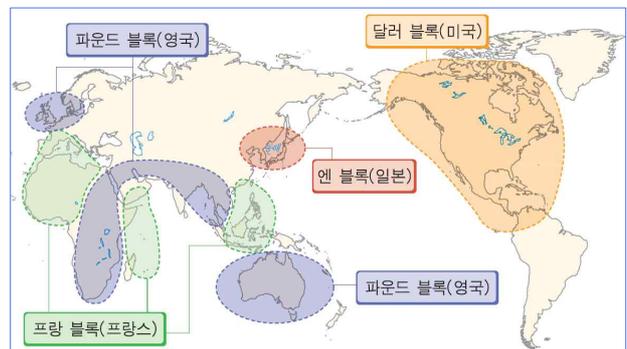
-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선린외교 정책
 - : 달러 블록 형성

02. 영국

- 맥도널드 내각 구성(노동당이 보수당과 거국 내각 결성, 1924 · 1929 · 1931)
 - : 국가 재정 삭감, 공업과 농업의 통제 강화
- 오타와 영국 제국 경제 회의 개최(1932)
 - : 보호 관세, 파운드 블록 형성

03. 프랑스

- 좌파 중심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 노동자 생활 개선 추구
 - : 40시간 노동제, 단체 교섭권 확립 등
- 프랑 블록 형성



〈대공황 이후 경제 블록의 형성〉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전체주의의 등장]

01. 배경

-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 : 민주주의 발전
- : 사회주의와 연계된 노동 운동 활성화
- ⇨ 파시즘(fascism) 등장

02. 특징

-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 언론과 사상 통제, 노동 운동 탄압

▣ 무솔리니의 파시즘

파시스트에게 있어서 모든 국가 안에 있으며 국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파시즘은 일국일당이며 전체주의자의 국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에 힘을 준다. 우리들은 정치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파시스트 조합 국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의 신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다. 국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국가에 대립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조지 셀데즈, 『명언 사전』

[각국의 전체주의]

01.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結束主義)

- 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 무솔리니(1883 ~ 1945), 파시스트당 결성(1919)
- : 로마 진군(1922. 10월)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일당 독재 체제 구축
- :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주의 부정
- 군국주의와 대외 팽창 정책
- : 알바니아 보호국화(1927), 에티오피아 침공(1935 → 1936), 알바니아 침공(1939. 4월)



〈로마 진군〉

02. 독일의 나치즘(Nationalsozialismus, 파시즘과 인종주의의 조합)



〈독일의 실업률 추이와 나치당의 지지율〉

- 바이마르 공화국(1919 ~ 1933)의 경제·사회 혼란
- 나치당(Nazis)의 총선 승리(1932)
- 히틀러(1889 ~ 1945)
- : 총리로 취임(1933)
- : 총통 취임(장검의 밤, 1934)
- : 아리아인 우월주의[인종주의]를 내세워 반(反)유대 정책 추진]
- : 국제연맹 탈퇴(1933) → 재무장 선언(1935)
- : 라인란트 점령(1936. 3월)
- 비밀경찰(게슈타포)과 친위대(슈츠슈타펠, = SS) 창설
- 괴벨스(1897 ~ 1945) 문화부 장관
- : 의회주의 무시, 개인의 자유 부정, 획일적 사상 통제

03. 일본의 군국주의

- 재벌(자이바쯔)과 군부 및 보수 세력의 결집 → 산업화와 군비 확장 모색
-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1932) ⇨ 5·15 사건 ⇨ 국제 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1937)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전(前) 유럽의 상황]



〈게르니카〉

01. 에스파냐 내전(1936 ~ 1939)

- 좌파 인민 전선 정부 수립(1936. 2월)
- 프랑코 군부 세력의 쿠데타 선언(모로코, 1936. 7월)
- : 독일·이탈리아의 추축국 동맹 체결과 지원(1936) ⇨ 본국 상륙 ⇨ 프랑코 정권 수립(1939)

02. 방공 협정 체결(1937)

- 국제연맹 탈퇴
- : 독일(1933), 일본(1933), 이탈리아(1937)
- 3국 추축(樞軸, 중심축) 진영 형성
- : 독일과 일본의 방공 협정 체결(1936) ⇨ 이탈리아의 방공 협정 가입(1937)

03. 독일의 팽창

- 오스트리아 병합(1938. 3월) ⇨ 수데텐 지방 요구(1938. 9월) ⇨ 뮌헨 회담(1938. 9월)에서 수용
- 체코슬로바키아 점령(1939. 3월)
- 폴란드의 단치히 회랑 요구 ⇨ 영국·프랑스의 반대 ⇨ 폴·영·프 상호 원조 조약 체결(1939. 3월)
-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1939. 8월)

제1조 독일과 소련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제2조 조약 체결국 한쪽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체결국은 그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체결 당사자인 양국은 공동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1939 ~ 1945)]

01. 독일의 침략

- ① 폴란드 침공(1939. 9월 1일) ⇨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 포고(1939. 9월 3일)
- ②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침략(1940. 4월) ⇨ 파리 점령(앙리 페탕, 비시 정부 수립, 1940. 6월)
- ③ 이탈리아 ⇨ 이집트(1940. 9월), 그리스 침공(1940. 10월)
- ④ 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 소련 영토로 진격(바르바로사 작전, 1941. 6월)
: 전쟁 장기화에 대비, 식량과 석유 확보 목적

02. 연합국의 대응

- 드골을 중심으로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 수립(영국 런던, 망명 정부, 1940. 6월)
: 레지스탕스 운동(독일에 대한 항전) 전개
- 영국의 처칠 내각(1940 ~ 1945)
: 독일군 상륙 저지, 딩케르크 다이아모 철수 작전(1940. 5 ~ 6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01.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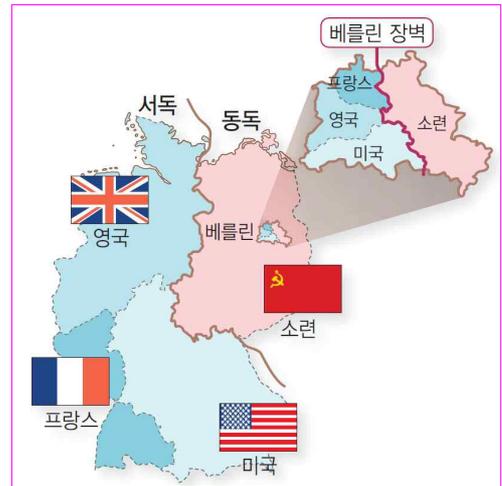
-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

02.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

- **뉘른베르크 재판**(1945 ~ 1946)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 1946 ~ 1948)

03.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의 변화

- 독일
 - : 알타 회담에서 분할 논의 → 미·영·프·소 4개국의 **분할**
- 일본
 - :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 1945 ~ 1952)의 지배
 -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으로 주권 회복
- 오스트리아
 - : 제2 공화국 성립 → 중립국화



(4개국의 독일 분할과 베를린 장벽의 설치)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성립]

01. 과정

- **대서양 헌장**(1941. 8월)
 - :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 마련
-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월)
 -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정식 출범(51개국 참가)

제1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침략 행위와 그 밖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국제 분쟁과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결한다.

제24조 국제 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한다.

제42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정해진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군·해군 및 지상군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02.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의 비교

국제 연맹(1920. 1월)	국제 연합(1945.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제네바(본부) • 미국, 소련 등 불참 → 소련 가입(1934) • 경제 제재 이상의 제재 수단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본부) • 미국, 소련 참여 →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 국제 연합군 →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



▣ 전체주의

-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정신적인 가치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스트 국가는 국민의 삶을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고양한다.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정당, 결사, 노동 조합, 사회 계급)도 있을 수 없다.

- 무솔리니, 『파시즘 독트린』, 1932

- 우리는 개인과 계급 상호 간의 투쟁을, 신분과 종파와 정당 상호 간의 투쟁을 종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 독일 민족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기 본인의 앞에서 있는 것과 같은 독일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오직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정당 등의 집합으로서로는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민족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 히틀러의 연설, 1937. 10. 4.

- 믿으라, 복종하라, 싸우라! 게으른 자는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 생산하지 않는 자는 좋은 이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급자의 명령에 토를 달지 마라. 내 집이 두 쪽 나도 조국이 중요하다.

- 리토리오 이탈리아 청년단의 좌우명

- 우리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피의 깃발 앞에서 나는 조국의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 히틀러 유겐트 가입 선서

▣ 독일의 나치즘

언제나 가장 강한 종족이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한다. …… 그렇다면 가장 강한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 그것은 바로 아리아인이다. …… 이런 아리아인을 오염시켜 인류를 퇴보하게 만들려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 히틀러, 『나의 투쟁』

개념 Check

- 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② ()는 1934년 총통으로 취임한 뒤 반(反)유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 ③ 독일, 일본, ()는 1937년 3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樞軸國)을 형성하였다.
- ④ 1939년 9월 독일이 ()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⑤ 루스벨트와 처칠은 전후 자유 무역 활성화와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한 () 헌장을 발표하였다.
- ⑥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 전쟁을 일으켰다.
- ⑦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에서는 ()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보다 우선한다.

01

밑줄 친 ㉠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2-수능]

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서는 많은 일본군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최근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어 불안감이 고조되었지만, 때마침 본국의 남부 지방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기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일본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 ①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미국 대통령
- ② 독일에 맞서 선전 포고를 하는 영국 총리
- ③ 영국에서 저항 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 ④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발표하는 독일 총통
- ⑤ 덴마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는 독일군 장교

03

밑줄 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21-수능]

세계사 신문 ○○○○년 ○○월 ○○일
(기획 특집: 20세기의 사건)
독일,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하다!



▲ 독일 재무장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와 주변국

히틀러의 집권 이후 재무장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지역 일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윈헨 협정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나머지 지역까지 요구하며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는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점령을 감행하였다.

<보기>

- ㄱ.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었다.
- ㄷ.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공격하였다.
- ㄹ.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단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연합군의 군사 법정이 전범 24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 종전 후 이듬해 10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은 (가)을/를 일으킨 나치 정권 지도자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괴링 등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재판은 침략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고 민간인 학살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 ①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② 독일이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 ③ 시안 사건으로 장제스가 감금되었다.
- ④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개시하였다.
- 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성립되었다.

04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2021-6월 모의평가]

오늘 새벽 4시, 선전 포고도 없이 독일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저들은 비행기로 키예프, 세바스토폴 등 우리의 도시를 폭격하였습니다. 이는 배신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지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우리 땅을 침공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조국을 위한 전쟁이었고, 패배라는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군대는 자유를 위해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3국 협상 성립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대공황 발생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카이로 회담 개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결성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